

12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3.12.21.(목) 오후 3시,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손영준 위원장, 안호림 부위원장, 허인순, 김희중, 서신석,
진한수, 안성희, 이상현, 이성우 위원 9인(강건기 위원 서면 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연합뉴스TV 제7기 시청자위원이 선정한 '2023 시청자위원장' 시상식 개최

사내기자 중 최대 단독보도 성과와 튀르키예 지진참상과 희망을 시청자에게 전하여 투철한
기자정신과 사명감으로 2023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심층 보도하여 공론장 형성에
크게 기여한 정치부 소재형 기자에게 시청자를 대표하여 상패와 부상을 시상하였음

▲ 손영준 위원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12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한 달 동안 다양한 이슈를 성실하게 보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현안을 의제화해, 우리 사회 공론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에는 영상미를
강조한 지역 제작물이 돋보였습니다. 12월9일 <3m 넘는 독수리가 눈앞에...경남 찾는 '하늘
의 제왕'>기사에서는 독수리 수 백 마리의 군무를 볼 수 있어서 대단히 좋았습니다. 12월
12일 <사상 첫 호우·대설특보 동시 발령된 강원...현재 상황은?>은 올 겨울 첫 대설특보를
맞아 설악산 진부령 현장을 발 빠르게 연결한 점이 좋았습니다. 12월2일 <임금님도 반한
맛...경남 산청은 지금 곳감 말리기 한창> 기사는 노란색 곳감 영상 처리가 아주 돋보였습니
다. 11월18일 [생생 갤러리]에서도 농촌 무 수확, 패러글라이딩 장면, 한라산 설경 등이 좋았
습니다. 지역 기사는 사실 모든 국민이 보는 기사입니다. 연합뉴스TV 지역기사는 해외에서
도 온라인으로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뉴스는 해당 지역 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 모두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스트레이트 위주로 처리하기 보다는 가급적 리포
팅을 통해서 더욱 다채롭고 심층적인 내용으로 꾸며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요즘 지역 소멸 위기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
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하려 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지원을 독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지역의 사건 위주로 주로 리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저희가 한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이런저런 소개를 하
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각종 행사에 대해서 저희 리포터가 나가서 현장 연결을
통해서 전하기도 하고 '풍경여지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갖가지 풍물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
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

<연합뉴스TV 견학 프로그램 운영 관련>, 경쟁사인 보도채널 YTN 홈페이지에는 견학 신청 코너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견학안내(신청방법, 대상, 동선), 견학신청 및 취소, 홍보영상, 홍보 사진, 견학 후기 등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코너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뉴스가 만들어지는 현장 특히, 초중고 대학생 등 시청자에게 방송국에 견학을 통해 체험하고 홍보하면 좋은 이미지로 미래의 잠재 시청층으로 확대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시청자 권익증진 및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의견드립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저희도 여건이 되면 견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저희 TV를 알리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사실 아직 여건이 미비합니다. 이 건물이 연합뉴스 건물이다 보니까 견학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공간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연합뉴스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YTN은 자체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견학 프로그램을 위한 이런저런 시설들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보다 인력도 많고아서 견학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작년 한 해에 연합뉴스와 연계해서 총 18건의 견학 성사를 시켰습니다. 인원 수로는 250여명이 되구요. 특히 언론을 준비하는 대학생들 그 다음에 해외 기자단, 해외 대학생 위주로 견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지역 초등학생들도 견학 신청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다만, YTN처럼 홈페이지 이런 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견학을 받아들이기에는 저희가 아직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놓지 못하고 있어 어느 정도 여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본격적인 견학 체제를 갖추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견학 신청을 받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허인순 위원

- 유튜브 프리미엄 43% 올리다니...스트리밍플레이션에 부담 ↑, 송고시간 2023-12-11 18:34:35
OTT 가격 인상에 불을 지핀 건 글로벌 선두업체인 넷플릭스, 계정 공유 단속에 나서면서 회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려면 매달 5천원을 추가로 내도록 함. 국산 OTT인 티빙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 가량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2%가 OTT를 이용하고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평균 2.7개의 OTT를 구독하고 있는 상황. OTT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업체들이 줄인상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게 됐습니다. OTT 용어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 : 개방된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프로그램,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용어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소개가 되었으면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 [현장의재구성] '굿바이 BTS' 병역논란 셀프 종료..."2025 완전체로" 2023-12-08,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BTS 멤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 잘 설명해 준 기사로 문제부는 병역면제 요구, 국방부는 군 입대 입장이 맞았던 상황의 종지부로 모든 멤버들이 군 복무를 하게 된 사실을 보며 '과연 어떤 게 정답일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리포트에서 OTT라고 용어를 쓴 데 대해서 좀 설명이 덧붙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우리에게 생소했던 이런 영어 약어들이 어느 정도 오래 쓰이면서 이제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단계가 오거든요. AI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인공지능 굳이 안 해도 AI라고 하면 정확하게 풀이는 못하더라도 어떤 건지는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단계가 됐죠. OTT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OTT가 뭐냐고 정의하라고 그러면 쉽지 않지만 OTT가 넷플릭스 같은 것이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풀이를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끔씩은 그런 정의를 해주는 게 방송 입장에서는 시청자에게 조금 더 친절한 접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영상 구성 '현장의 재구성' BTS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BTS 멤버들을 전부 다 군대에 보내야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그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다뤄왔고요. 현장의 재구성이라는 이 제작물의 취지가 리포트라든가 단신이라든가 이런 데서 잘 쓰이지 않았던 영상물들 음성들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의미도 담길 수 있도록 편집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BTS 군 징집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김희중 위원

- 12.1일 뉴스17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 보도 관련 국회 현장에서 연결된 기자의 매끄럽지 못한 리포트에 앵커 사과했어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날 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이에 앞서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수용함에 따라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내용에 대한 여야의 공방을 전하는 뉴스였음. 당시 기자는 이동관 위원장 사퇴에 대한 야당 원내 대변인의 입장 발표 이후 여당 원내 대변인의 입장 발표를 내보내기 직전 리포트 과정에서 약 5~6초간 리포트가 중단됨.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침묵이 이어졌지만 다행히 기자는 곧 침착하게 보도해야 하는 지점을 찾아 리포트하고 여당 원내 대변인까지 연결되어 마무리 할 수 있었음. 아마도 초년 기자의 긴장이 실수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짐. 이날 초년 기자의 실수도 아쉬웠지만, 매끄럽지 못했던 리포트에 대한 앵커의 사과가 없어 시청자 입장에서 더 아쉬웠음. 기자의 실수에 대한 앵커의 사과는 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신뢰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함.

- 보도 전문 채널로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위해 늘 깨어있고 노력하는 연합뉴스TV가 되어야, 최근 연합뉴스TV에 대한 대주주 변경 시도가 있었고, 방통위에서는 사실상 불승인 결정을 내렸음. 불승인 배경에는 민간 의료법인의 적대적 인수 시도와 전례 없는 심사 속도 등에 대해 여론이 공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이번 불승인에 담긴 여론은 연합뉴스TV가 보도전문 채널로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켜내고 국민과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도해 달라는 메시지이기도 함. 또한 연합뉴스TV가 일상이 된 마약 문제, 무너지는 교권 현장, 도 넘은 청소년 도박 실태, 문제가 되어 버린 빈집 실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해 시청자에게 알리고 대책을 주문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각계각층의 기득권에 대한 고발을 멈추지 않는 등 그동안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기도 할 것임. 다만 방통위의 불승인에도 연합뉴스TV가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함. 취재 인력 및 방송 인프라 부족, 지역 뉴스와 국제 뉴스를 비롯해 과학, 의료 등 뉴스 콘텐츠의 부족은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아울러 뉴스 그대로의 뉴스를 전하되 뉴스가 시청자에게 재미와 감동도 주는 깨알 같은 뉴스를 발굴하고

기자가 아닌 시청자의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는 숙제도 풀어야 할 것임. 모쪼록 이번 대주주 변경 시도와 불승인이 남긴 의미가 연합뉴스TV의 건전한 발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람.

▲ 추승호 보도본부장

- 미숙한 현장연결 생방송에 대해서 앵커가 사과를 했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한 5~6초 정도 머뭇머뭇거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애매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가 사과를 할 정도의 대단한 사고냐라는 판단이 잘 안 났을 수 있다고 보구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기자 본인이 그냥 간단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시청자가 보기에 좀 어색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 정도면 PD가 굳이 앵커에게 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 지침을 주기 전에 앵커가 스스로 알아서 재량껏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방통위가 숙고 끝에 사실상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현명하고 또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적인 문제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처하는데 있어 제도적인 허점의 문제인데요. 언론사와 자산 10조 이상 대기업은 30% 이상 보도채널과 종편의 지분을 못 갖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4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거든요. 언론사가 경영하고 있는 보도채널과 종편은 지분 보유에 있어 이런 불평등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보도채널이나 종편채널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허점에 대해서는 시급히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신석 위원

연합뉴스TV의 [썬속뉴스] 12월 05일 : 자전거·킥보드 타고 실내 매장 휘저은 남성...SNS엔 수상한 내용이, 실내 매장에서 자전거와 킥보드를 자랑스레 타고 다니는 SNS의 영상이 [썬속뉴스]의 주제뉴스로 적정한지 묻고 싶다. 공영방송 연합뉴스TV의 테마 뉴스의 하나인 [썬속뉴스]에서 사회의 질서의 이탈과 사회적인 범죄를 조장할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개인 유튜버의 SNS 영상을 클릭수가 높다고 하여 여과 없이 홍보하듯 방송을 하는 것은 모방 행위를 부추기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공영방송은 보도함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도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사회의 문제점들을 찾아 보도하여 잘 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것 또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12월 05일 [썬속뉴스]가 보도한 "자전거·킥보드 타고 실내 매장 휘저은 남성...SNS엔 수상한 내용"이라는 주제로 보도한 영상 내용을 보면 무엇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인지 영상제작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백화점이나 일반 매장 내에서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다니면 법적 처벌을 받으니 그런 행동을 하지마라는 것인지, 온라인상에서 신분증 위조 등 요청 사항에 대한 범죄행위에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의도를 알 수가 없다.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개인 유튜버의 100만 이상 클릭수가 나와서 화제의 주제로 정한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보도 내용상으로 보면 클릭수가 나오지 않는 개인 유튜버들에게 사회적 질서 이탈 행위 등을 통해 영상 촬영하여 올리게 되면 많은 클릭 수가 나오니 한번 해보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뉴스 보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문제의 SNS 영상 사이트까지 기자가 방문하여 동조의 글까지 소개하고 더 나아가서 오토바이 폭주 영상 소개, 신분증 구함 소개 등을 소개해 주었다. 또한 영상 속에 나

오는 계정에서 소개하는 “민증 제작, 여증 남증 제작 ... 민증 제작합니다. ~~ 연락 줘요 아가들!” 이런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에서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사회의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을 홍보해 주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 “공공장소 민폐에 이어 범죄 의심 행동까지 하는 이 남성, 정체는?” 이 멘트는 시청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멘트인지 알 수가 없다. 정상적인 멘트라고 하면 예를 들어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런 행위는 시청자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정부 당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유튜버 영상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적을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하고 모방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대책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등등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썬속뉴스] 영상 보도에는 그동안 몇 만회부터 몇 십만 회, 백만 회 이상 클릭수가 나온 영상들도 있다. 하지만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회질서 이탈과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들로 제작된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제작 의도가 없는 영상 뉴스 보도였다고 생각이 든다. 연합뉴스TV는 공영방송이다.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미칠 영향과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들을 시청자들의 시청률을 높이는 데만 급급하여 보도하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한다. 좀 더 신중한 보도 기획과 사전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TV방송과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방송은 표현이라든가 형식,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영방송이 만든 콘텐츠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클릭 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영상이라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클릭 수에만 매달려서 공영성 내지 뉴스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공영방송의 디지털 콘텐츠로는 자격 미달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썬속뉴스건은 제작팀의 의도가 잘못된 행동을 알려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각심을 주려는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 관리가 조금 잘못된 측면이 있지 않거나 생각합니다.

▲ 강건기 위원(서면제출)

- 12월 10일 뉴스15 AI 윤리 논의개점 휴업..."기본법부터"에서 정부가 지난 9월에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놓고 AI 산업육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까지 진척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에 관한 여론 수렴을 위해 만든 '디지털 공론장'은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댓글조차 없고 AI 윤리에 관한 논의조차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AI 기본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도 함께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다만, 보도에서 아쉬운 점은 AI 기본법 안의 규제 조항을 좀 더 상세히 보도하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에서 AI 기술과 관련 서비스가 더욱 생활화한 만큼 이에 맞춰 규제 마련은 필수적이라는 마무리는 적절하였습니다. 다만 보도 내용이 12월 9일 뉴스프리즘 '오픈 AI 내 실패한 쿠데타.....미래의 불행일까 행운일까'에서 보도된 일부 보도 내용을 12월 10일 뉴스 15에서 그대로 다시 보도한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12월 9일 뉴스프리즘(탐사 보도)에서 오픈AI의 위험성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는 점을 탐사보도 형식으로 심층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AI의 상용(개발)화와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오픈 AI

의 공동창업자인 샘 올트먼이 이사회에서 해임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AI의 위험성에 대한 논쟁을 심층적으로 다룬 것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는 오픈 AI의 파멸성과 개발성의 견해차가 치열한 논란 시점에 우리의 AI 윤리 문제는 답보 상태인 것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시기적절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인공지능 문제는 지금 사실 인류가 핵무기 이후에 봉착한 최대 난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위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기가 될 때마다 AI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도 초점을 맞춰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보도를 하겠습니다.

▲ 진한수 위원

[현장의재구성] 흑사병 수준의 저출생 문제...北 김정은도 눈물, 현장의 재구성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화제가 된 특정 사건이나 사회 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만들어진 섹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지난해보다 더 추락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북한 역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보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눈물을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발표와 한국의 저출생 수준이 '흑사병'과 비슷하다는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의 글을 인용합니다. 또한 이 칼럼니스트의 글을 언급한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국민의 힘 최고위원회 회의 장면을 내보내면서, 서정숙 국민의 힘 의원이 '나혼자 산다 등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보다는 훈훈한 드라마를 많이 개발해달라'라고 발언한 장면이 보도됩니다. 일단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국내외에서 인지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그 심각성을 받아들여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서정숙 의원의 발언 내용은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발언 자체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현장의 재구성에서 굳이 포함할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생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평양 전국어머니대회에 11년 만에 참석하여 출생률 감소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보도하여 북한 역시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으나 저출생이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라는 측면에서 굳이 우리나라와 북한의 저출생 문제를 묶어서 통계수치를 다룬 것이 '재구성 측면'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잘 와 닿지 않습니다. 북한은 특별한 대책 없이 감정으로만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와 북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감소가 유난히 심각한 이유를 언급하는 등의 공통적이거나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재구성 코너의 취지에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전반적으로 보면 영상 구성물의 메시지 관리가 정교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영상 구성 같은 경우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 리포트나 단신에 비해서 좀 색다른 영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재미를 주려는 의도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미를 쫓다가 내용과 메시지에서 다소 관리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미와 내용을 잘 조화시킬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당부하겠습니다.

▲ 안성희 위원

- 투데이 JOBS 3.0 [장천 변호사] 일기도 꾸준히 쓰면 괴롭힘의 증거가 된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12/1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화 4년 넘었지만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동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직접 <뉴스는 법이다>라는 코너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신고 건수와 신고 유형, 다양한 인정 사례와 신고를 꺼리게 되는 배경, 발생 원인과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있어서의 조직 내에서의 필요한 조치, 실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후조치 방법 등에 대해 20여 분 넘는 시간을 배정하여 자세하게 다룬 것은 시의 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슈가 될만한 사례 발생 시 또는 정부 발표 등을 단편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달라 노사 모두, 직장을 다니거나 회사를 관리, 운영하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가 이번 12월 중순 나온다고 하니, 연합뉴스TV에서 개선 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관련 보도를 추후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저희 직업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가 나오면 많은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헌 위원

지난 12월 11일, 국토부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는데, 관련한 내용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고, LH가 짓는 공공주택은 바닥구조를 1등급으로 설계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니다. 발표 3~4일 전부터 정부가 대책마련중이라는 내용을 단신으로 내보내고, 대책발표 당일에는 현장 중계까지 했습니다. 이후로는 여러 차례 정부대책을 다뤘고, '1번지 이슈', '경제읽기' 등을 통해서 전문가와 대담식으로 층간소음 관련 이슈들을 심도 있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 비중이 60%에 달하고,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명히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갖는 내용인데,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이슈 전반에 대해서 짚어보고,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나 한계점 등도 다뤘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이 해당 이슈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보도가 계속 반복되는 것보다 시청자들의 관심 이슈는 관점을 조금씩 달리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아무래도 저희 뉴스를 하루에 장시간 계속 보시는 분들은 계속 똑같은 뉴스가 반복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담도 조금씩 관점을 달리하고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도 약간 성격을 좀 달리해서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층간소음 같은 경우도 비교적 잘 다양하게 다뤄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뤄지려면 뉴스총괄부에서 사전에 이슈 파악을 잘해서 시간마다 좀 차별성 있게 뉴스를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총괄부의 어려운 측면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오래

보시는 시청자를 위해서 시간마다 최대한 차별성 있는 뉴스를 내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성우 위원

- '투자 귀재' 짐 로저스 "한국 경제, 규제 너무 많다"(12.12), 세계 3대 투자자이자 한반도 통일 문제를 비롯해 한국 경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던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지난 10일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은 통일부 장관과 회견하는 등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와중에 언론매체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보였는데, 이런 와중에 연합뉴스TV가 짐 로저스 회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것에 놀랐습니다. 물론 연합뉴스TV만이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질문 소재의 다양성과 흥미성 측면에서 콘텐츠의 비교 대비 우위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라는 거시적 질문으로 시작해 공매도 금지 조치, 주식 양도세 및 법인세 논란, 미국의 긴축 기조와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가능성, 불황 상황에서의 투자 유의사항과 같은 심도가 깊고, 무게감이 있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라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 그는 "자신의 열정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한다고 해도 그대로 해라. 당신이 맞아요. 당신은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라는 재치 있는 답변으로 인터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3분 정도의 부담 없는 분량을 짐 로저스 회장의 핵심이 담긴 간결한 답변으로 알차게 구성됐기에 눈과 귀에도 잘 들어왔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인사에 대한 단독 인터뷰 진행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또한 신문매체에서 주로 진행했던 상황을 상기해 보면 이번 뉴스는 더욱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가 시청자를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명 인사의 단독 인터뷰 기사를 자주 볼 수 있길 기대하며, 이번처럼 잘 진행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유명 인사가 방한해서 신문이나 인쇄매체 등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기사가 나더라도 또 방송에서 직접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가 느끼는 것은 차원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에서 인터뷰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저희는 가급적이면 유명 인사들을 많이 인터뷰해서 시청자들에게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12월 시청자위원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